

도시풍의 소모 슈트와 시골풍의 방모 재킷

영국 신사는 런던에 있을 때는 소모 슈트의 모습으로 시골에 있을 때에는 방모재킷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고 한다. 방모 스웨터에 방모 스커트라고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영국 여성의 일상생활일 것이다.

우리나라 가을의 디스플레이로는 영국의 시골풍으로 방모 재킷, 스웨터, 스커트 등이 등장한다. 소모옷감은 얇은 것부터 중간까지로 하리, 고시, 드레이프가 있다. 천의 표면은 매끄럽고 잔털이 없는 것이 많다. 슈트감이나 드레스감인 울 조오젯, 개버딘, 서지, 비니션 등은 워스티드이다. 이러한 감각적이고 산뜻한 옷감에는 가늘고 긴 울을 잘 빚어서 만든 가는 방모사 합사가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면 코마사에 상당한 것이다. 방모 옷감은 두껍고 별키성이 있다. 이러한 별키성과 반발력이 있는 옷감을 스펀지네스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올답다고 평가한다. 양모 옷감은 보기에다 따뜻해 보인다. 트위드, 홈스펀, 팬시트위드(셔닐조라고도 한다.), 폴라노, 기모되어 있는 코트감 등이 방모 옷감이다. 이와 같이 시골 감각이라던가 장식적인 매끈한 옷감에는 짧은 울을 방적하여 만든 잔터링 많고 굵고 별키한 방모 단사가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면카드사에 상당한 것이다.

1. 서지(serge)

엇선방향으로 능조직을 나타낸 복지용 직물유의 총칭이다. 널리 일반에게 이용되는 실용적인 직물의 하나로서, 본디 소모사를 사용한 모직물이 많았으나, 오늘날은 화학합성섬유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지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의 견모교직물을 뜻하는 sergea에서 왔다는 설과 라틴어의 견을 뜻하는 serica에 유연한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것이 옳은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직은 2/2의 사문조직으로 된 것으로서, 경, 위 모두 거의 같은 밀도로 짜여져 있으므로 능선은 45°에 가까운 선으로 되어 있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달리고 잇는 면에 일반적으로 천의 겉면이 된다. 마무리 가공에는 표면에 잔털을 다소 남긴 것과 클리어컷한 것이 있다. 피륙의 종류에는 정척사문으로 한 것이 보통이나, 산형사문으로 한 헤링본 서지, 이중직으로 한 더블 서지 등이 있고, 얇은 것은 춘추하복지로, 두꺼운 것은 동복지로 사용되는데, 특히 학생복 등에 많이 이용된다. 비교적 값이 싸나, 사용 중에 닳아서 반질 반질해 지기 쉬운 것이 결점이다.

양모 추동 옷감으로는 능직이 많다. 가을의 정번인 플라노로써도 트위드, 개버딘, 서지 커어지 등도 능직이다.

능직은 울에 적당한 직물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바닥을 치밀하게 한다던가 바깥의 찬바람을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따뜻한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바닥을 두꺼운 평직으로 하게 되면 옷이 무겁게 되고 딱딱하게 되어 착용감이 나쁘게 된다. 이러한 천은 예를 들면 면포의 범포(덕, 캔버스라고도 한다)와 같은 것으로 착용하게 되면 옷이 팽기어 활동하기에 불편한 옷감이 된다. 그런데 경위사의 조직점이 적게 하여 다시 말하면 짜여지는 곳을 적게 하여 실의 부출이 많게 하면 천의 굽힘이 다소 부드럽게 된다. 결국 실의 부출 점을 적게 한다는 것은 평직보다는 능직, 능직보다는 주자직으로 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능직은 평직보다도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우며 튼튼하기는 평직 옷감 다음이다. 따라서 적당하게 부드러우며 적당하게 튼튼한 옷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바닥은 평직보다 공기를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 같은 변수와 밀도라면 평직보다는 능직이 보온성이 있다. 능직으로 만든 옷감의 외견상의 특징은 사선이 달리는 이랑이다. 이것을 능선(twill l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능선이 천의 표리에 같은 각도로 나타내고 있는 것과 이면에는 없고 표면에만 경사가 급한 각도 또한 완만한 각도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45° 의 능선을 표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서지이다. 개버딘은 천의 표면에 62° 정도의 능선을 나타내고 있다. 능선의 각도는 경위사의 변수와 밀도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진다. 능선의 방향은 우

상의 것과 좌상의 것이 있다.

일본은 우상, 유럽에서는 좌상의 것이 많다. 그 이유는 일본글은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고 알파벳은 좌측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좋으냐고 하는 것은 기호의 문제다

그러나 능선의 방향은 능선의 뚜렷함과 희미함을 나타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가공 즉 발수 가공 등의 수지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낭창낭창한 옷감은 개버딘 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후처리 가공을 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Canvas(범포)

경사, 위사에 굵은 변수의 단사, 합연사 또는 평행사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짠 두꺼운 평직물, 의류용의 경포에 대응하는 말로 중포 또는 덕이라고도 한다. 대마, 아마, 조마, 황마 등의 섬유로 만드는 마범포와 면으로 짠 면범포 외에,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제품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면범포는 두께로 분류하며 (0~11호), 두꺼운 것(0~8호)을 즈크(애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포와 즈크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마범포나 합성섬유제품도 면범포에 준하여 호별로 분류된다. 범포는 내수성, 내구성이 풍부하여 범선의 돛, 텐트, 비덮개, 가방, 즈크화, 여과포, 캔버스, 바지감, 스커트감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유화를 그릴 때 쓰는 화포(캔버스, canvas)는 특수 천의 일종이며, 원래는 면, 마직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화합섬으로 만든 것도 있다. 조직은 굵은 변수 실을 쓰고, 평직 또는 사직으로 짜며, 표백, 방수 등의 가공을 한다. 종류는 유화용 아티스트 캔버스, 화물 포장용 테어드 캔버스(tared canvas), 빗물 봉수용 루핑 캔버스(roofing canvas) 등이 있다. 또 수예용 천으로도 쓴다. 특히 유화용은 아교 또는 카세인 등을 칠하고, 그 위에 아마유, 아연화 등을 덧칠한다.

3. 덕(docuk)

무명실 또는 삼실을 사용하여 촘촘하게 짠 투박한 직물 비교적 굵은 실을 2올 꼬임으로 하여 밀도를 많이 하여 짠 것인데, 1yd(91.44cm)당 무게는 8~25oz(1oz = 28.35g)로 가벼운 것으로부터 무거운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다. 내수성과 내구력이 있어서 두꺼운 것은 범포, 천막 등에 사용되고, 비교적 가벼운 것은 운동화, 바지, 스커트 천으로도 사용된다. 아마사로 짠 것은 덕심이라고 하며, 슈트 등의 심지로 사용된다. 비교적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기억에 있을 것인데 가빠(capa)라고 하여 짐이라던가 가마 따위의 비막이로 덮었던 두껍고 뽀뽀한 천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 원어는 포르투갈 말인데 일본식으로 쓰던 말이다.